

『韓国語教育研究』(第10号)別刷

ISSN 2186-2044

【寄稿論文】

韓國語 歴史文化教育의 方向과 内容

閔 賢植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20年9月

韓國語 歷史文化教育의 方向과 內容

閔 賢植

As contents of history and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difficult, learners at a beginning level prefer having a popular culture education. Learners at an advanced level, however,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development history of Korea in detail and demand the history and cultural education. Teachers must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knowledge of history to teach and understand the development history of Korea. Teachers must also have a critical thinking ability that enables them to be critical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Korea and current social conflicts from a perspective of a cultural development history. It is required for teachers to study, develop, and share educational materials of Korean cultural history and to strive to consistently update the materials while reflecting on the effect of the class. Teachers should decide the direction whether to teach a general history or a classified cultur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historical development.

It is more effective to teach positive aspects of Korean history first and then to inform problems of the Korean society and history. Teachers must teach students to be able to reflect these problems from a perspective that these problems are universal in human history or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istory. Government agencies should invest in developing Korean cultural history readers in which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experts of the Korean cultural history collaborate. Korean language teachers should not provide a nationalistic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superiority of Korean culture. Through a comparative reflection of cultural history of a learner's country and that of Korea, an education that can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tual cultures should be provided.

1. 韓國語 文化教育의 問題點¹

언어교육은 흔히 문화교육의 성격을 띠므로 언어문화교육이라고도 한다. 즉 언어교육은 언어만 단순히 가르치지 않고 언어와 문화를 융합해 가르치는 학문으로서 언어에서 문화가 중시된다. 그러나 실제로 가르치기 어려운 수업이 문화수업이다. 허다한 항목에서 문화 내용 선정이 어렵고, 자료 선택도 어려우니 가령 내용의 倫理性을 고려하면 한국

¹ 본 연구는 2019년 11월 東京 韓國文化院에서 열린 日本韓國語教育學會 創立10周年記念 國際學術大會의 기조강연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한 논문이다.

영화에 욕설, 불륜, 폭력 장면이 많아 교육용 영화 선정에 어려움이 많다(이정희 1999).

또한 한국문화교육 내용을 선정해 초급, 중급, 고급, 연구과정에 위계화를 세우기도 어렵다. 국립국어원(2017)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을² 만들어 문화 부문도 4개 범주 77개를 설정하였는데 그것을 전 세계 각국마다 상황이 다른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문화교육은 교수자의 수준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다른 수업으로 한국어교육 현장의 학습자들은 한류에 매료돼 한국어를 독습한 개인차가 다양해 교수자는 그 수준에 맞춰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대체로 相互文化的 能力(intercultural competence)³ 함양을 위한 학습자 주도의 相互文化接近法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다. 학습자 모어와 학습 목표어라는 두 언어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 성찰하여 발표함으로써 한국어 표현 능력을 높이고 타 문화에 대한 긍정적 공감 능력도 길러 주기 때문이다.⁴

² 이보라미(2018)의 국립국어원(2017)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개괄 해설에 따르면 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主題: 17개 범주, 85개 항목 제시
- ② 機能 및 課題: 5개 범주 52개 항목 제시
- ③ 言語 知識

語彙: 10,635개 제시(1급: 735개, 2급 1,100개, 3급 1,655개, 4급 2,200개, 5급 2,365개, 6급 2,580개)

文法: 336개 제시(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

- 발음: 5개 범주 72개 항목 제시
-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 텍스트: 4개 범주 144개 항목 제시
- 문화: 4개 범주 77개 항목 제시
- 평가: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문화의 경우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의 교육 모형을 채택하여 최소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요구 수준(숙달도)만을 제시하였다. 문화 항목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범주와는 달리 숙달도가 낮은 순으로부터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만 표시하였는데 이는 그 등급에서만 학습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급에서부터 학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³ 상호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이란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개방성을 갖고 다른 문화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태도(attitude), ②다른 문화권의 산물에 대한 지식(knowledge), ③다른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skills of interpreting), ④ 새로운 문화 지식과 실재를 습득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⑤분명한 관점과 기준으로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문화 인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을 가리킨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교육학사전(2014: 1266) 참고.

⁴ 최근의 조영미(2018, 2019)에서 대만에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 현장을 연구 보고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2. 韓國語 歷史文化敎育의 位相

학습 동기가 높은 당대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쉽지 않은데 학습 동기가 높지 않은 역사문화교육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화 유형의 목록 중에 역사문화 영역은 존재하지만 대중문화에 비하면 後順位로 존재한다. 대중문화는 가변적, 단기적, 감성적 성격이 강하지만 역사문화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므로 불변적, 장기적, 이성적 성격이 강하다.

한국어 학습 동기로나 언어습득 효율성 측면에서 역사문화자료가 대중문화자료보다 효과적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중문화교육 중심의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역사문화교육을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역사문화를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류를 일으킨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가 역사적 허구에 기반한 것이란 점은 역사적 허구 드라마조차 한류를 일으키고 한국어 학습 열풍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실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도 충분히 한국어 학습에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역사문화교육은 언어교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다.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현대 대중문화 영역에 비해서는 가르치는 것에 부담이 크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면서 역사문화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교육이 되므로 반드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고 역사문화교육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3. 韓國語 歷史文化敎育의 原則과 方向

한국어교육에서 역사문화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역사문화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므로 그 방향을 세우려면 먼저 언어교사가 근본적으로 역사를 대하는 원칙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① ‘事實’과 ‘解釋’의 客觀的 均衡 原則

사실과 해석의 두 측면은 역사 서술이든 역사교육이든 어느 경우에도 냉철하게 분리해 보아야 할 기준이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사실로서의 역사, history as past)이자, ‘역사가에 의해 선택되어 기록된 사실’(기록으로서의 역사, history as historiography)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므로 후자의 역사에는 주관적 편견이 개입된

다. 아무리 역사 해석에 객관성을 지향해도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사학자 랑케(L. von Ranke)는 역사가의 주관성을 철저히 배제한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영국의 사학자 카(E. H. Carr)는 역사란 과거의 사실을 보는 역사가의 관점과 사회 변화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을 보더라도 역사 자료는 객관적, 실증적 자료를 편견 없이 객관적 주체로서 엄선하여 이해 평가하고 서술해야 하지만 그것은 이상이고 역사 서술자나 교사에 의해 객관성을 가장한 편견이 관점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역사 해석을 소개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⁵ 가령 崔萬理를 한글 창제를 반대한 역적처럼 보지만 그는 조선 최고의 清白吏요 그 당시 상황에서 憂國衷情으로 對明 外交를 고려해 반대한 것이라 당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결코 역적이 아니다. 언어 교사가 역사 자료를 다루면서 자칫 편견에 따라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왜곡하여 학습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가나 교육자는 객관적 중간자로서 어느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을 초월해 역사 자료를 다루도록 힘써야 한다.

② 열린 歷史的 思考의 原則

역사교사나 언어교사는 기존의 역사적 사실로 알려진 것과 통설로 알려진 해석도 언젠가는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해석에 대해 권위 있는 검증과 해석을 찾아 소개하되 끊임없는 검증의 자세와 열린 해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이영훈(2018), 이영훈 외(2019)의 논의처럼 세종대왕은 노예제와 기생제를 공고히 한 왕이라 성군으로 우상화할 필요가 없고, 일제 말 수탈로 알려진 상당수는 정상적 수출이었는데 수탈로 과장되었으며, 일본 징용공 사진을 조선인 징용공 사진으로 둔갑시킨 사진 자료의 왜곡은 항상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양호환(2010)은 역사교육에서 ‘歷史的 思考力’을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 사고하는 방식이라 하면서 그 하위 범주로는 크게 歷史的 探究機能과 歷史的 想像力이 있으며, 역사적 탐구기능은 ①문제의 파악능력, ②정보의 수집능력, ③자료의 취급능력, ④결과의 적용 능력을 포함하며, 역사적 상상력은 ①삽입, ②역사적 감정이입, ③역사적 판단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를 역사적 사고의 특성에 입각해서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네 가지로 구분하며 역사교육에서도 탐구교육이 만능의 도구는 아니며 한계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⁵ 양호환(1998:1-3)은 역사 서술에는 관점이 개입되고 그에 따라 역사서술이 이루어지는데 서술가는 숨게 되면서 관점이나 해석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사 서술은 언제나 관점에 따른 해석을 포함하게 된다.... 역사가가 해석을 하면 할수록 그의 역사 서술에는 관점이 포함되게 되며 관점이 개입될수록 ‘편견’의 가능성은 커진다”(2쪽)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어교육에서 역사문화교육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言語教育이 우선인가, 歷史教育이 우선인가

언어교육에서는 언어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문화교육이나 역사교육은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단계나 단원에 편성하고 그 수준에 맞게 내용도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역사교육에 치우치면 어휘 통제가 안 되어 어휘 수준이 어려워지므로 학습자 단계별 수준별로 어휘 통제를 잘하여야 한다.

② 역사교육의 내용은 어느 수준까지 다룰 것인가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를 “입문기, 초급, 중급, 고급, (특수목적 대학 진학을 위한) 연구반용”으로 구분한다면 수준의 조절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친다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선정한다면? 다섯 개는? 열 개는? 이런 중요도 관점으로 교사들이 상의하면서 정하면 객관성을 높이고 혼자 운영할 때보다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③ 韓國史 概觀을 다루는가, 主題別 歷史를 다루는가

한국사를 단순 연대기로 개괄해 다루는 것과 문화사, 생활사, 전쟁사(국난 극복사), 문학사 등의 주제별 분야사로 다루는 학습자 요구와 교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연대기라면 “고조선 - 삼국시대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 - 일제강점기 - 남북 분단기 (미소 군정) - 대한민국” 시기로 약술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기를 활용하더라도 문화사적으로 접근하여 古朝鮮(단군신화 이야기) - 삼국시대(高句麗의 舞蹈塚 벽화와 韓流 群舞 노래의 연관성, 百濟 계백 장군과 3000 궁녀, 新羅 花郎徒의 삼국통일과 異次頓의 순교) - 統一新羅(통일의 영웅 김유신, 신라 瑞鳳塚 금관) - 高麗(八萬大藏經, 금속활자) - 朝鮮(세종과 훈민정음, 임진왜란, 독립신문) - 일제시대(삼일운동, 신사참배) - 대한민국(한강의 기적) 등으로 왕조, 사건, 인물, 유물, 신화 및 설화를 연계하여 다루는 방안이라면 국가 이름이나 시대를 재미있게 연계하여 기억하기 쉽게 만들 것이다.

④ 한국사 單獨 敍述인가, 兩國 交流史 比較 敍述인가

한국사의 一半史나 주제별 分野史를 단독으로 소개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사와 한국어 학습 외국인들의 자국의 역사를 비교 대조하는 구성으로 다룰 것인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문화접근법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는 양국의 역사를 비교하

면서 학습자는 자국사의 이해도 강화하게 되고 목표어 역사를 공감하며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자국사와 문화사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어 상호문화접근법은 역사교육에서 유용하다. 더 나아가 양국의 역사적 영향 관계를 다루는 양국 교류사나 갈등의 역사(외교 분쟁사, 침략사 등)를 다룰 수 있다.

⑤ 歷史 敍述인가 歷史文化史 敍述인가

한국어교육에서 역사교육과 역사문화교육은 구별할 수도 있다. 단순한 역사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거나 사건사 중심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역사교육이 된다. 그런데 역사 사건이나 한국인의 역사의식을 문화적 접근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역사문화교육이 된다. 가령 朋黨政治, 勢道政治, 土禍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대명사 ‘우리’에 담긴 종족 중심의 폐쇄적 공동체 문화를 설명하고 조선의 신분차별 제도를 다루면서 長幼有序의 사회문화와 높임법의 언어문화와 연계한다면 이는 역사문화교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제 식민 통치로 인한 반일의식이 오늘날 아직도 일제 물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거나 정치인들이 이를 선거 때 이용하는 행태라든가, 역사적 사건을 변형시켜 <왕의 남자>, <나랏말싸미>, <말모이> 등의 영화로 만들어 흥행하는 현상도 역사문화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역사문화교육의 서술 방향은 각 기준이 중복적인 측면도 있으나 어느 방향으로든지 역사문화교육의 기준을 삼을 때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음은 한국사의 내용은 무엇으로 구성할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4. 歷史文化教育의 內容

4.1 韓國史 概括 略史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나라의 변천사를 간략히 정리한 약사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언제 도입 소개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개의 入門期 교재에서 한국사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초급 후반부나 중급, 고급 단계에서 다룰 수 있다. 집필자들이 한국을 개관해 설명할 때 한국의 나라 변천사를 소개하는 문화교육용 교재일수록 한국의 국가 변천사를 간략히 도입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필자가 간단히 한민족사를 예시한 것이다.

“韓民族은 桓因(하나님)의 아들 桓雄이 이 땅에 내려와 熊女와 결혼해 낳은 檀君의 後孫으로 天孫民族의 자부심을 가졌다. 한민족은 古朝鮮, 三國(高句麗·百濟·新羅), 統一新

羅, 高麗, 朝鮮으로 이어지면서 固有言語와 文化를 발전시켰다. 고대에 들어온 佛敎는 護國佛敎, 無所有의 전통을 세웠고, 儒敎는 忠孝烈의 윤리를 높였다. 朝鮮의 世宗大王은 訓民正音 창제로 文明國의 기초를 놓았지만, 朝鮮은 黨爭과 土農工商의 신분차별, 농업개혁 실패, 外國정책, 산업화 실패로 世界 最貧國이 되어 36년간 日本의 植民地로 전락하였다.

한민족은 1919년 基督教, 天道敎가 주도한 學族的 3.1 독립운동으로 萬民平等의 自由의 길을 외치고 上海 臨時政府를 세워 李承晩, 安昌浩, 金九 등의 독립운동과 太平洋戰爭에서 미국의 승리 덕분에 1945년 8.15 해방을 맞았으나 美蘇 軍政으로 分斷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共產黨의 共產化 暴動 속에서도 李承晩은 反共 自由民主 국가 건설을 위한 외교력으로 1948년 8.15. 大韓民國 建國에 성공하였으며 1950년 소련, 중공과 공모한 北傀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韓美同盟 조약을 통해 해양국가를 향한 번영의 길을 열고 원자력 산업 등 산업 기초를 놓은 후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學生義舉로 下野하였다.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朴正熙의 근대화 수출 위주 산업 건설과 새마을운동으로 한국형 産業革命을 이루었으나 長期專權 維新體制의 불행을 겪었다. 1980년대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高度成長의 産業化와 1988년 올림픽 성공과 함께 民主化의 鎭痛을 겪었다. 1992년부터 5년 단임제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1994년 北核危機, 1998년 外換危機, 2006년 북한 핵실험과 실전배치 위협, 2008년 광우병 폭동, 경제 위기를 겪은 속에서도 세계 10대 貿易大國에 이르는 성취를 이루었고 앞으로는 一流 先進國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2013년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탄핵을 당한 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였다. 2000년 이래 드라마, 영화, K-pop, 요리, 패션 등으로 나타난 韓流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北核 危機가 지속되고 있다.

4.2 韓國 言語文字 發達史: 3대 계몽 혁명 - 문자 혁명, 문체 혁명, 교육 혁명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계통과 한글의 특징을 알리고 중국 및 일본과 같은 한자 문화권 고급 학습자에게는 한국인의 문자생활 변천사를 소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 혁명적 변화를 세종의 문자 혁명, 한글 전용 중심의 문체 혁명, 보편적 의무교육이 가져온 교육 혁명의 3단계로 설명하는 것도 유용하다(졸고 2016, 2019).

4.2.1 世宗의 문자 혁명

한자를 활용한 借字法은 불편하여 言文이 不一致하였는데 그 한계 상황에서 세종은 한

글 창제의 대업을 이루어 ‘한글 문명’을 수립하는 기틀을 수립하였다.⁶ 세계사에서 언어 정책이나 문자 개혁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많으니 루터의 종교개혁과 성경 번역 및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중세를 지배하던 라틴어 문명을 깨트려 유럽 평민의 언어인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등의 가치를 높여 오늘의 유럽 문명을 가져왔다.⁷

한글은 계층을 초월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어 평등적, 실용적, 민주적 글자이다. 세종은 지배계급이 아닌 피지배 계급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문자를 만든 세계 유일의 왕이다. 이런 정신은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기록한 <訓民正音>이란 책자의 서문에서 ‘자주, 애민, 실용’의 3대 정신으로 밝혔다. 御製序文은 한민족사에서 최고의 한글 명문이라 할 만하다.

오늘날 유네스코에서도 문맹 퇴치는 인권의 시작이라고 가르치는데 세종은 한글 창제로 愛民人權의 유네스코 정신을 실천한 군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종은 노예제, 기생제, 지성사대주의 외교를 확립한 군주라는 점에서 망국의 씨앗을 뿌린 군주로 냉혹한 비판을 받는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한다(이영훈 2018).⁸

4.2.2 開化派의 문체 혁명

한글은 실용적 문자이었지만 한자문화에 눌러 눌리 쓰이지 못하고 편지, 시가, 한글소설 등 정서적 문체에나 쓰였다. 한글 창제 시부터 용비어천가의 국한혼용체가 출현하여 한글전용체와 함께 오래 경쟁하였다. 조선 시대의 문체 갈등과 경쟁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었고 일제시대에는 개화기 국한혼용체가 주류로 부각하였으나 일한혼용체로 가기 위한 준비 연습이었다.

세종의 문자 혁명은 한글이란 씨앗을 심었지만 개화기에 와서야 한글 중심의 문체 혁명

⁶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1993년에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문명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이란 글에서 세계는 주요 문명권끼리 충돌 또는 협력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가 설정한 문명권의 1차 기준은 ‘종교’로 기독교권, 러시아 정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불교권, 힌두권이며 여기에 일본권, 라틴 남미권, 아프리카권이 추가된다(이희재 역 1997).

⁷ 루터는 인쇄술을 “복음 사역을 전진시키는 신의 가장 최고의 지극한 은혜의 행위”(God’s highest and extremest act of grace, whereby the business of the Gospel is driven forward)라고 하였다(Eisenstein 2005: 304).

⁸ 이영훈(2018)에 따르면 세종은 1422년의 노비고소금지법(奴婢告訴禁止法), 모계를 따라 노비를 세습하는 1432년 종모법(從母法)을 만들어 노비(세습)제를 확립하고 망국적 신분제 사회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기생 어머니의 딸은 기생을 세습하는 기생(세습)제를 공고히 해 1431년 종모법(從母法)을 만들고 관청 기생이라는 여성 노비제를 공고히 하였으니 이는 중군위안부의 뿌리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지성 사대외교로 자주국방, 자주외교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받는다.

을 기독교 개화파가 선도하여 빛을 보기 시작하였고 문맹퇴치 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교육 혁명과 1990년대부터의 컴퓨터 혁명에 힘입어 한글전용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4.2.3 한국의 교육 혁명

조선어 말살정책으로 한국어 말살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해방 후 한국의 국어교육은 다시 부활하였다. 미군 군정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문맹률은 80% 안팎이었는데 조선어 학회는 해방 직후 한글강습회를 전국에 열어 문맹퇴치에 앞장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 후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인 제6호 법률을 반포한다(1948.10.9). 그 내용은 “공용문서는 한글로 적되 당분간 한자를 병용한다”라는 것이다. 이는 공문서만이라도 한글체를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국한혼용체가 지배하던 사회라 한자 병기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되어 한글 교육이 정상화되면서 문맹률은 급감하여 10% 대로 떨어지므로 이 시기를 이승만 정부의 교육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5. 韓國文化史 敎育

한국어교육이 발전하면서 한국문화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나 해외동포용 한국문화사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은 졸고(2006)에서 필자가 제안한 바 있는 ‘한국 문화사 읽기’ 교재의 목적을 보강한 개정안이다.

['한국 문화사' 읽기 교재 구성안]

(1) 동방의 해 뜨는 나라

고조선의 건국. 단군신화와 동방예의지국(8조의 禁法): 고조선, 箕子朝鮮, 衛滿朝鮮에 대한 한국과 중국 학계의 견해 차이. ‘朝鮮’ 이름의 유래

(2) 신화들의 세계

부여와 삼한 시대, 삼국의 태동 건국신화(주몽, 박혁거세 이야기, 김수로와 인도계 허황옥 왕비 이야기), 한국어의 뿌리: 북방설(알타이 어족설과 고시베리아 어족설)과 남방설(헨버트의 인도 드라마비다 어족설)

(3) 동아시아의 强者, 高句麗 제국

① 한민족의 고토와 광개토태왕비, 한민족의 상무정신(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친 고구려 이야기,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 망국론: 고구려는 왜 망하였나?

- ② 한국의 무예(태권도, 한국 검도 이야기), 한국의山城 이야기(고구려의 城), 한국의 춤(고구려 舞踊塚 이야기)

(4) 문화 왕국, 백제와 신라

觀音의 微笑와 일본 국보 1호 이야기. 王仁 博士와 千字文 전래. 이차돈의 순교와 불교의 나라 신라, 佛國寺와 石窟庵의 신비, 護國佛敎 이야기. 향가(薯童謠·處容歌·祭亡妹歌), 延鳥郎 細鳥女, 朴堤上 이야기.

* 망국론: 백제는 왜 망하였나?

(5) 해상 무역국가 통일신라와 발해

- ① 통일신라의 영웅들(김유신, 무열왕 金春秋, 문무대왕 金法敏)과 삼국사기 김유신전. 신라 문무왕과 일본의 문무천황, 화랑도 정신과 화랑 이야기, 서역과의 교류(慧超의 往五天竺國傳), 대당 교역 海神 張保皋의 해상무역, 新羅坊과 新羅院 이야기 *망국론: 통일신라는 왜 망하였나?

- ② 종교의 융화(불교 대가 元曉와 유학 대가 薛聰의 이야기)

문장가 최치원과 討黃巢檄文 이야기

- ③ 발해가 고구려 옛 땅을 되찾다

(6) 중세 문화국가 고려

- ① 왕건의 나라. 訓要十條와 지역 차별. 무인 차별과 무신 정권의 시대. 북방 투쟁사(대 거란, 몽고 항쟁사)와 서회 장군의 외교

- ② 고려 유학 이야기: 과거제도 이야기

- ③ 고려 불교 이야기: 팔만대장경 이야기

- ④ 고려의 무역: 송나라, 원나라와의 교역, 고려에 온 안남국(베트남) 왕자

- ⑤ 紅巾賊, 倭寇 이야기

(7)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 ① 이성계, 이방원, 정몽주 이야기. 시조 문학 이야기

- ② 세종 시대 이야기, 세계적 언어학자 세종의 한글 창제와 對馬島 정벌

* 세종은 성군인가? (조선 노예제와 기생제 강화시키고 사대의외교 추구하다)

- ③ 조선 유학 이야기: 성리학의 국가 이념화와 한계

- ④ 조선의 과학(측우기, 해시계 등)

- ⑤ 왜란·호란 시대(민족 수치와 각성): 聖雄 李舜臣과 거북선(일본 해군, 이순신 연구하다) * 항복한 왜장 金忠善 기문 이야기: 韓日 交流의 架橋가 되다

- ⑥ 홍길동과 임궽정 이야기

- ⑦ 잡혀간 조선 도공의 문화 전파(일본, 도자기 세계화로 경제 일으키다)

- ⑧ 한일 교류의 꽃 피우다: 刷還使, 朝鮮通信使, 日東壯遊歌 이야기

- ⑨ 서학, 천주교의 전래: 李承薰과 丁若鏞 형제의 천주교 신앙

- 친주교 박해와 순교자들의 역사: 독짓는 늙은이와 화전민으로 살다
 실학의 태동: 丁若鏞, 金正浩 大東輿地圖 이야기, 秋史 金正喜 이야기
- ⑩ 망국의 鎖國政策: 조선 멸망과 식민지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시련
 영토를 지켜라(숙종 때의 백두산 정계비. 간도 협약, 독도 문제의 진실)
- ⑪ 위민정치와 言路의 문화: 조선의 권력 분립과 세계적 왕조 기록문화, 조선왕조실록
- ⑫ 조선의 노래: 민요, 시조, 판소리, 가사, 창가(개화가사)
- ⑬ 조선의 도덕: 삼강오륜과 충신 열녀 효자 효녀 이야기[충(사육신), 열(춘향전), 효(심청전)]
- (8) 자주독립의 각성: 조선말, 일제하 독립 저항 운동
- ① 문을 열어라!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조약
 개화파 청운의 꿈, 갑신개혁 삼일천하(김옥균 개화파 이야기)
- ② 기독교의 전래와 한국 교회 성립
 북으로 온 영국 선교사 존 로스, 매킨타이어의 최초 성경 번역과 조선 청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Corean Primer>(한국어 초보) 이야기
 남으로 온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험버트 등의 교회, 학교, 병원 삼각 선교
 기독교 개화파의 형성과 徐載弼의 獨立協會, 獨立新聞 이야기
 萬民共同會와 청년 이승만의 꿈과 한성 감옥 이야기.
 성경 번역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 ③ 개화파의 再起: 동학군과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과 뮤지컬 ‘명성황후’ 이야기
- ④ 러일 전쟁, 일본의 독도 편입, 을사보호조약. 고종의 헤이그 밀사 파견
- ⑤ 이승만의 외교: 이승만의 명저 <독립정신>의 자유 무역 자주 독립정신
 고종의 밀사 이승만 도미 파견과 외교 좌절. 이승만의 영세중립국론
- ⑥ 한일합방: 조선은 왜 망했나?
 (신분차별, 문무차별, 남녀차별, 적서차별의 불통사회, 문맹사회, 노예 착취 사회)
- ⑦ 일제 침략과 항일 독립 투쟁: 1차, 2차 의병 운동, 안중근의 만국평화론.
- ⑧ 105인 사건과 해외망명 사태(이승만은 하와이로 김구는 상해로)
- ⑨ 국어 연구의 선각자, 주시경. 그 제자들의 꿈, 조선어학회
- ⑩ 자유의 만세 합창: 大韓 獨立萬世 외쳐라. 유관순 이야기, 제암리 교회 탄압 이야기
- ⑪ 세 개의 임시정부와 통합 임시정부 이야기: 중국인을 놀라게 하고 동북아 전세를 역전시킨 윤봉길의 의거. 6.10만세 사건(1926), 광주 학생의거(1929)
- ⑫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농촌 계몽 브나로드 운동
- ⑬ 군국주의와 전쟁의 시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 ⑭ 조선민족의 수난: 신사참배 강요, 조선어 말살과 창씨개명, 정신대,
 징병 징용 이야기, 일제의 언론 탄압과 조선어학회 사건
- ⑮ 안중근과 윤동주를 추모하는 일본인들 이야기
- ⑯ 太極旗와 愛國歌의 유래와 뜻

⑰ 문학 이야기: 민족시인(김소월, 한용운). 지식인의 꿈과 좌절(이광수, 최남선), 암흑시대, 다락에 숨어서 쓴 시(청록과 문인 이야기)

(9) 시련과 영광의 도전, 대한민국

① 분단과 분열의 해방 공간: 공산당의 폭동과 미군정의 좌우 합작 노선

②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

- 백성에서 국민으로: 자유민주공화국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
- 국가 정체성: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로 출범
중국 종속 대륙국가에서 서구 자유 체제 수용해 한미일 동맹의 해양국가로
- 국가 정통성: 1948.5.10. 총선거 95% 투표율로 제헌국회 출범
1948.12.12.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유엔이 승인
농지개혁 실시로 소작농 철폐. 의무교육 실시로 문맹퇴치
원자력 유학생 파견으로 세계 제일의 원자력 기술 토대 마련.

· 6.25 전쟁 중 平和線 선포 韓美相互防衛條約으로 強軍 育成

③ 자유 수호의 한국전쟁: 국제공산주의 확산 저지하다. 6.25로 일본 다시 일어서다

④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 탄생 외교

⑤-1. 민주화: 60.4.19 의거, 80.5.18 광주 민주화 운동, 87.6.10 직선제 쟁취

-2. 근대화, 산업화: 박정희의 선택(수출 주도 정책, 새마을운동, 자주국방)

-3. 한강의 기적.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한일협정, 월남전 파병과 KIST 탄생 외교). 2012년 20-50 클럽, 2018년 30-50 클럽 일곱 번째 국가

-4. 선진화: 선진 한국의 조건(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법치, 교양)

⑥ 親日이나 反共이나, 保守나 進歩나 사회 갈등 대타협 청산

⑦ 韓流: 한국인의 손(IT 산업, 조선업, 세계적 예술인, 기능올림픽 선수들), 한국의 맛(요리), 한국의 멋(한복, 디자인, 건축), 한국의 끼(한류 드라마, 영화, 노래: 배우와 가수들), 한국의 힘(한국의 스포츠 영웅들)

⑧ 독재의 상처로 얼어붙은 땅 북한: 자유를 찾아(탈북자 인권 실태)

⑨ 세계 속의 한민족: 국내 한국인, 재미, 재일, 재중, 재러 동포 등 세계 속의 빛나는 한인들(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 박영석; 도쿄 지하철의 義人 이수현 등)

⑩ 한국의 위기: 대한민국 체제 정체성과 정통성의 위기. 저성장의 늪.

초고령사회, 최저 출산율의 총인구 및 생산 인구 감소의 인구 절벽.

여야 경쟁적 뇌물복지의 대중선동(포퓰리즘)

6.15 남북 연방제(일국 양제) 선언의 위험, 북핵 위기, 한미일 동맹 위기

⑪ 한국의 과제: 북한 해방 자유통일 이루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위 내용은 시대사별로 주요 쟁점이나 문화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긍정적 역사관을 토대로 구성해 본 것이다. 위와 같은 각 단원 편성과 간단한 글과 사진 삽화 자료들로 구성하

여 읽고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와 토론거리를 내며 고급 표현과 어휘를 익히게 하는 체제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6. 韓日 交流史

상호문화접근법의 역사교육에서는 학습자 국가와의 교류사를 비교해 다룰 필요가 있다. 한중, 한일, 또는 한중일 교류사는 역사적 한자문화권의 愛憎 관계를 담고 있어 균형적 시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가령 한일 관계에서는 애증 관계가 많지만 미래 상호 발전을 위한 건설적 우호 관계 수립을 위해 정치권이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선린 우호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한중,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 정치외교 사학자 중심의 전문가 공동 역사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일간에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한일 갈등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바 2001년 10월 한일 정상간 협의를 통해 역사 공동연구를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5월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발족해 3년간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위원회는 3개 분과 19개 대주제를 선정해 6회의 합동전체회의, 45회 합동분과회의와 기타 공동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국 역사학계의 갈등을 확인하는 상태로 머물기도 하였지만 서로의 왜곡을 시정하고 반성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소중한 성과를 내었다.⁹ 여기서 다룬 주요 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제1분과 고대사 편): 4-6세기의 한일교류사. 廣開土大王 碑文의 해석 문제 등

제2권(제2분과 중근세사 한국편): 僞使, 通信使,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왜학 역관 등

제3권(제3분과 중근세사 일본편): 僞使, 通信使, 조선침략 전야 등

제4권(제3분과 근현대사편): 근대 한일관계사 상호인식, 1910년 이전 한일 조약, 동아시아 국제 질서, 청일 전쟁과 러일전쟁

제5권(제3분과 근현대사편): 일제 식민지 지배, 독립운동, 전시동원 체제, 조선인의 대응

제6권(제3분과 근현대사편): 1945년 이후의 한일관계. 한일협정. 전후 한일경제, 북일 수교의 한계

⁹ 일본은 이미 1960년대 말 미국과 일본 사이에 2차 대전 직전까지의 미일 관계사에 대한 공동연구가 있어서 <Pearl Harbour As History>(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는 미국 대학 교재로 널리 이용되고 일본어판 <일미관계사: 개전에 이르기까지의 10년>(전 4권, 동경 대학출판부, 1971)은 일본에서도 여전히 애독되고 있다고 한다. 한일공동역사연구위원회(2005) 제1권 일본측 위원장 三谷 太一郎의 머리말 참고.

내용을 보면 양국의 갈등 주제인 독도 문제, 식민지 배상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았으나 이후에도 제2기 연구가 진행되어 2010년 제2기 연구보고서가 7권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역사 교과서 문제도 다루어졌다. 이런 공동 연구를 통해 양국 역사학계의 상호 이해와 성찰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양국 교사들의 상호 탐방과 공동교육 연구도 필요하다.

7. 韓國의 現代史와 韓國語의 言語 活力

역사문화사를 가르치고 배우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현대사에 자연스레 접목이 이루어져 역사의 단절이 없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사 학습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더욱 고취하는 동기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류와 관련 지어 한국어가 言語 活力(ethnolinguistic vitality)이 높은 언어임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언어는 언어 배경의 국가와 민족의 위상에 좌우된다. Landry, R., & Allard, R. (1992)는 언어 활력의 개념을 제시하고 4대 요소로 人口 資本(demographic capital), 政治 資本(political capital), 經濟 資本(economic capital), 文化 資本(cultural capital)을 들었다. 이 개념을 한국어에 적용하면 한국은 언어인구 대국이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정치에서 세계 20위권의 민주화를 달성하여 정치 선진국이며, 10대 무역대국이라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한글과 한국어로 고유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한류 문화를 창출하여 문화자본도 우수하므로 언어 활력이 높은 언어에 속한다(졸고2016, 2019).

오늘날 한국은 식민지 출신 원조 受惠國家로서는 유일하게 産業化, 民主化를 동시에 이루고 援助國으로 변하여 이제 경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문명사적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학문, 종교, 예술, 문화, 국민교양 등의 정신문화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한국어교육은 이런 선진 한국의 동력이 되도록 원대한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국립국어연구원(2002), 우리 문화 길라잡이, 학교재
국립국어원(2017),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김정숙, 이정희(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새국어생활 28-2, 국립국어원, pp. 49-71
민현식(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교육 10-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pp. 429-452

- 민현식(2004), (한국어 문화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1 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59-103
- 민현식(2006),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3-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137-180
- 민현식(2016), 한글문화의 정신사, 한국언어문화학 13-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93-118
- 민현식(2019), 한국의 국가 발전과 모어교육의 상관성, 선칭어문 46, 서울대 국어교육과, pp. 5-46
- 박영순(2002),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교육학사전, 하우
- 양호환(1998) 역사서술의 주체와 관점: 역사교과서 읽기와 관련하여, 역사교육 68, 역사교육연구회, pp. 121 - 26
- 양호환(2010), 역사적 사실의 특징과 역사교육의 특수성, 역사교육 113, 역사교육연구회, pp. 103-130
-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 출판부
- 윤여탁(2013),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 이보라미(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성과, 새국어생활 28-2, 국립국어원, pp. 9-30
- 이영훈(2018),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 01, 백년동안
- 이영훈 외(2019),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미래사
- 이정희(1999), 영화를 통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221-240
- 이희재 역(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Samuel P. Huntington(1997),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 Touchstone]
- 임경순(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역락
- 조영미(2018), 상호문화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사례 연구: 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9, 연세대 한국어학당, pp. 225-248
- 조영미(2019), 상호문화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문화 수업 방안 연구: 대만 한국학 부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연구회, pp. 325-354
- 한상미(1999), 한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 방안 -의사소통 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347-366
- 한상복·이문웅·김광익(1991),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출판부
- 한일역사공동위원회(2005), 한일역사 공동보고서 (전 1-6 권), 한일역사공동위원회
- 한일역사공동위원회(2010), 제 2 기 한일역사 공동보고서 (전 1-7 권), 한일역사공동위원회
- Eisenstein, Elizabeth L.(2005), The Printing Revolution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dry, R., & Allard, R.(1992), Ethnolinguistic vitality and bilingual development of minority and majority group students, In Willem Fase, Koen Jaspaert, Sjaat Kroonet (eds.) Maintenance and Loss of Minority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pp. 223-251.
- Robinson, G. L. N.(1985), Crosscultural Understanding, New York: Prentice Hall
- Saville-Troike, Muriel(1982, 1989),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Basil Blackwell
- Scollon, Ron and Suzanne Wong Scollon(1995),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lackwell Publishers Ltd.
- Tomalin, Barry & Susan Stempleski(1993, 7th 2001), Cultural Awareness, Resource Books for Teachers, Oxford University Press

(서울대학교 國語教育科)

minhs@snu.ac.kr

韓国語教育研究（第10号）

2020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文 慶喆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勾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金世徳、柳朱燕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